

【특별기고】

근대 일본의 ‘만주’ 환상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劉建輝**

차례

- I. 들어가며
- II. 심상 풍경으로서의 ‘붉은 석양의 만주’ 탄생
- III. ‘마적(馬賊)’이 불러일으킨 로망
- IV. ‘환상’ 장치로서의 문학
- V. 투어리즘이 만들어낸 ‘만주’ 꿈
- VI. 나오며

I. 들어가며

중국의 동북지방은 일찍이 관동(關東)이라고 불렸다. 관동, 즉 산해관(山海關) 동쪽은 본디 청초 황실의 발상지로서 입관(入關) 이래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관내(關內)로부터의 이주가 금지되었다. 그것이 19세기에 들어서 러시아 세력이 남하하자 군사상의 필요 때문에 드디어 200년이나 이어졌던 봉금령이 풀리고 이른바 ‘툼관동(閩關東)’이라는 관내 각지에서의 인구 이주가 하나의 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사적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애시 당초 중국 국내에서도 말하자면 변강(邊疆)에 지나지 않았던 이 지역은 멀리 고구

* 이 글은 필자의 논문 「『滿州』幻想—「樂土」はかくして生成される」(*Ideal Places in History: East and West*, vol.10, 1997.3,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를 수정보완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教授.

*** 번역: 전경선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육전담교수).

려나 발해국 시기의 잠시 동안을 제외하고 물론 건너편의 일본과는 절대 인연이 깊은 장소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본과 꽤나 떨어져 있었던 관동, 일본에서 말하는 ‘만주’는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팽창하는 일본의 북쪽 ‘최전선’으로 변하고 계속해서 그 사활을 좌우하는 ‘생명선’으로 급변하여 더욱이 제국 일본의 과멸로까지 발전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근대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잠깐 손에 넣었으나 삼국간섭에 의해 마지못해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의 권익을 재차 획득하고 사수하기 위해 그 후 러일전쟁, 중일전쟁 그리고 계속해서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창출한 괴뢰국가 ‘만주국’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던 과정이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일본의 근대사는 마치 이 만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까지 느껴지기도 한다. 그 일례를 들면 ‘잔류고아’나 ‘731부대’ 등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전후(戰後) 60년이 넘은 지금도 이 가장 큰 옛 상처가 여전히 쓰라리고 있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근대 일본의 운명을 크게 결정지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만주에 대해서는 어째서인지 그 역사적인 평가는 아직도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다. 확실히 교과서적인 ‘역사’에서 ‘만주’라기보다 일시적으로 그곳을 ‘국토’로 삼았던 ‘만주국’은 이미 일단 ‘재단(裁斷)’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근대 이후 대부분의 일본인의 심상 풍경의 하나가 된 저 ‘붉은 석양의 만주’가 그렸던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궤적에 대해서는 결코 역사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후 수많은 구 식민지 관계의 서적이 출판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 특히 ‘만주에 대한 서적’에는 어째서인지 그 특수한 이미지와 얽혀 일종의 향수가 항상 짙게 드리운다. 그것은 예를 들어 종전 직후의 ‘귀환’의 비참한 체험을 전하는 것 중에서조차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만주’에 관한 이러한 특수한 생각이 만약 단순히 일종의 향수에 머무른다면 문제는 단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찍이 ‘왕도낙토(王道樂土)’나 ‘이상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터무니없는 환상과 얽혀

있기 때문에 사정을 한층 복잡하게 하고 있다. 말하자면 바로 '만주'에 관한 이 짙은 향수와 과격한 '낙토' 환상이 표리가 되어 시종일관 '만주'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적 평가를 방해하고 또한 그 평가에 큰 진폭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때 '만주국' 총무청 차장을 맡았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전후 이미 붕괴한 단명 '국가'에 “민족협화, 왕도낙토의 이상이 빛나고 과학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과감한 실천이 행해졌다. 그것은 바로고 유니크한 근대적 국가 만들기였다.”(『あゝ満洲』, 満洲回顧集刊行會, 昭和四〇・三)라고 아낌 없는 찬사를 보냈다. 여기서는 그가 일찍이 '만주국'의 실제 지배자의 한 사람이고 이후에 총리대신 자리까지 올랐던 정치가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당화했다는 일면이 확실히 있다. 하지만 기시 정도로 과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발언에 가까운 주장이나 감정은 당시 어떠한 형태로든 '만주'와 관련 있던 많은 일본인에게 많은 적든 공유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만주'로의 진출과 침략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틈에서 반쯤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오는 것으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단순한 좌우 두 개의 역사관의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 속에 향수를 숨기거나 혹은 향수 속에 반성의 눈물을 주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일종의 뒤틀린 형태로밖에 나타낼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 심정에는 개인차에 의해 그 반성과 향수의 비례가 현저히 다르며 또한 그 비례의 많고 적음에 의해 전혀 상반되는 역사인식이 도출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기본 구조로서의 이 양자의 동거와 뒤틀림은 기시와 같은 지배자 측의 사람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 패전시의 생지옥을 경험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심정이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은 채 미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후 60년이 넘는 지금에서도 여전히 '만주'에 관한 인식이 정립되

지 않고 특히 공사(公私)의 장소에 의해 큰 어긋남이 보이는 것과 같은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뒤뜰된 심정 나아가서는 그 배후에 숨어 있는 한때의 ‘낙토’ 만들기의 환상을 한 번이라도 그 발생에서 파멸까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 없이는 도저히 ‘만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물며 올바른 역사적 평가 등은 더욱 무리임에 틀림없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본고에서는 청일전쟁 이래 생산된 각 분야의 ‘만주’ 관계 텍스트를 재료로 삼아 그것에 나타나는 여러 서정(感情)과 로망적인 언설이 어떻게 ‘붉은 석양의 만주’상(象) 내지는 ‘만주’ 환상을 준비·형성하고 또한 그 일련의 환상이 이후에 어떤 무모한 ‘실천’과 결부되었는지를 정리하여 간략하면서도 그 전체적인 상을 제시하려고 한다.

Ⅱ. 심상 풍경으로서의 ‘붉은 석양의 만주’ 탄생

중국 동북부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대개 청일전쟁의 개전과 함께 시작된다.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잇따라 한반도에 출병했던 양국 군대의 충돌은 중국 측의 전투 의지가 박약함으로써 육지와 바다 모두 일본 측의 유리한 형세로 전개되어 개전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선이 마침내 압록강을 넘어 일본군이 중국 동북 영내에 침입했다. 전장에서의 일본군의 거듭되는 승리를 일본 국내에 가장 빨리 전했던 것이 당시의 저널리즘, 예를 들어 『國民新聞』에 게재되었던 구니키다 돛포(國木田獨步)의 <愛弟通信>과 같은 종군기자의 종군기록이나 전쟁보도이지만 그 중에서도 개전에 조금 늦게 창간되었던 박물관(博文館)의 잡지 『日清戰爭實記』는 월 3회의 발행으로 진행되는 전황을 사진과 더불어 상세히 보도하여 대중 독자를 널리 확보했다.

종군기자들의 보도 내용이 거의 일본군의 전승에 맞췄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전황 보고의 사이에 현지의 상황, 특히 지리적·민속적인 상황도 당연한 것으로서 적지 않게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들 전쟁터의 정보는

뜻밖에도 이후 소위 ‘만주’에 관한 담론의 최초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전쟁 기간의 전쟁터 소개로서의 일련의 ‘만주’ 보도는 그후 즉시 일본인의 만주 이미지 형성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 점령한 장소가 요동 반도에 한정되었던 것, 일본 측의 승리에만 사로잡혀 현지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던 보도 형태도 그 하나의 원인이지만 삼국간섭에 의해 일단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하자 그 땅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약해지고, 대신에 ‘새로운 영토’가 된 타이완으로의 관심이 갑자기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예를 들어 같은 박문관(博文館)에서 발행되었던 당시 최대의 종합잡지 『太陽』의 전후 편집 동향을 보면 일목요연하다. 즉 종전 다음 해인 메이지 29년의 『태양』에는 ‘만주’ 관계 기술은 겨우 이즈미 교카(泉鏡花)의 소설 『海城發電』(제1호),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연재작 『遼東半島』(제6~15호), 종교학자 기시모토 노부타(岸本能武太)의 『遼東風俗一斑』(제13, 17호)의 3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고 다음 해인 메이지 30년이 되자 그것마저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만주’에 대한 서적을 대신하여 등장했던 것이 타이완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와 논문이다.

그런데 소위 타이완의 식민지 경영에만 사로잡혔던 것도 순간이었다. 메이지 30년대에 들어서자 러시아가 동청철도(東清鐵道) 부설 등을 비롯하여 급속히 ‘만주’와 조선에 진출하고 더 나아가 의화단운동에 편승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만주’를 점령했다. 이러한 러시아 세력이 남하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자극받아, 예를 들어 ‘만주’의 군사, 상업상의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주론(滿洲論)’이 다시 『태양』(고토 분지로(藤文次郎) 메이지 35년 제14호)의 지면에 등장했던 것처럼 ‘만주’가 운명적으로도 다시 한 번 일본 내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남침을 어떻게든 저지하고 ‘만주’와 조선에서의 권익상의 열세를 만회하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메이지 36년부터 37년에 걸친 러일전쟁이다. 다만 이 전쟁은 이전의 청일전쟁과 달리 세계 최강이라고도 불린 러시아 육군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전승에 따른 거둬드는 고전과 막대한 인적 희생이 강요되었다. 그러한 전전의 첩보와 비보

는 그야말로 격전지의 지명과 함께 대대적으로 일본에 전달되어 국민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203고지 공격, 휘순(旅順) 점령, 랴오양회전(遼陽會戰), 평토회전(奉天會戰) 등 세간의 관심사였던 이들 담론은 아마도 이국 정서를 포함하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만주’를 단숨에 친근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메이지 42년에 발표된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장편소설 『시골 교사(田舎教師)』에는 청운의 뜻을 품었으나 집안 사정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서 평범한 삶을 사는 문학 청년 하야시 세이조(林清三)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세이조는 폐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줄곧 신경을 쓰고 있던 것이 요양회전의 상황이었다. 결말에서는 ‘랴오양을 점령했다’는 뉴스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만주의 쓸쓸한 평야에 쓰러진 동포’를 생각하면서 젊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처럼 러일전쟁은 일본의 ‘국운’이 걸린 전쟁인 만큼, 또 강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상상할 수 없는 희생(전사자 8만4천4백 명이 강요된 만큼 좋은 삶든 그 전장인 ‘만주’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日淸戰爭實記』와 같은 취지로 메이지 37년 2월에 창간된 『日露戰爭實記』(獨立評論社 편집, 育英社 발행)의 제1호가 26판, 25만 부라는 전례없는 판매량을 보였던 것도 그 일단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소위 ‘10만의 영령, 20억의 국고’를 대가로 쟁취한 ‘만주’는 그후 이러한 것들의 ‘희생’의 기억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변경이면서도 어느 새인가 감상(感傷), 더 나아가 향수의 대상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로 러일전쟁 후에 갑자기 유행했던 ‘여기는 고국에서 몇 백리 /떨어진 머나 먼 만주의 /붉은 석양에 비취져 /친구는 들가의 돌 아래……’라는 <전우(戰友)>의 노래는 당시의 그런 국민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의 종결까지 <일본육군>(메이지37·7)과 함께 가장 널리 불렸던 군가라고 전해진 이 노래는 원래 의식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죽은 전우에 대한 심정은 물론이거니와 그 잠든 장소로서의 ‘붉은 석양의 만주’

가 가진 독특한 감상 내지 서정성을 국민 일반의 마음에 깊이 불어넣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원으로 이후 '붉은 석양의 만주'라는 이미지는 소위 담론 중에서 유포되면서 점차 하나의 심상 풍경이 되어 많은 일본인의 '만주'관의 원형을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러한 극히 감상적이자 서정적인 '만주'상은 또한 이국의 땅을 커다란 희생을 치름으로써 획득한 메이지의 '유산'으로서 받아들여 그것을 거의 '심정적 국토'로 간주해 가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그런 의미에서 러일전쟁 후에 생산된 독특한 국민적 심정은 이후 무슨 일이 있어도 '만주'의 권익을 사수한다는 일련의 무모한 폭주와도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Ⅲ. '마적(馬賊)'이 불리일으킨 로망

일본인의 '만주'이미지의 성립을 생각할 때 '붉은 석양'이 가진 감상과 서정성 이외에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요소가 러일전쟁 전후 일부 청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졌던 대륙 웅비의 정신 지향과 그것을 실천하는 형태로 중국에 건너갔던 대륙 낭인의 존재이다. 그들의 활약은 말하자면 종래의 감상적인 '만주' 이미지에도 또 새로운 낭만주의를 주입하는 것으로 이후 청소년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의 '만주' 꿈을 계속 북돋우었다. 이러한 종류의 정신 지향이 생겨난 배경의 하나는 이 시기 중국의 혁명운동이 점점 본격화하고 심지어 일본 특히 도쿄를 하나의 근거지로서 했던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중국혁명에 대해 일본의 민간 우익조직이나 국가주의자, 아시아주의자들이 각각의 목적으로 한결같이 강한 관심을 보이고 일부는 뜨거운 원조의 손을 뻗거나 이 기회를 일본의 대륙 진출에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갑작스레 눈에 띄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사례로는 1905년 재래의 혁명조직인 손문(孫文)의 흥중회(興中會), 황흥(黃興)의 화흥회(華興會), 장병린(章炳麟)의 광복회(光復會) 등이 도쿄에서 단

결하여 손문을 총리로 하는 ‘중국혁명동맹회(中國革命同盟會)’를 결성했던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의 활약이 무엇보다도 유명하지만 종래의 흑룡회 외 그 하부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린회(有隣會) 또한 선린동지회(善隣同志會)나 지나문제연구회(支那問題研究會) 등도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이 조직들은 때로는 중국 대륙에 사람을 파견하여 혁명과와 접촉하거나 때로는 중국 문제에 선언서 등을 대대적으로 내기도 하여 그 활동이 소위 대륙 응비의 꿈을 부채질하는 상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대중 아동문학 작가로 이름을 날렸던 야마나가 미네타로(山中峯太郎)가 중국 혁명의 열기에 감격하여 육군대학을 중퇴하고 ‘천하를 취하러 간다.’라고 호언하면서 대륙에 건너간 것은 일본 국내의 이러한 분위기에 고무되었던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이 시기 일본 청소년들의 이런 대륙 응비 지향을 자극하고 그 꿈을 북돋은 요소로서 앞의 우익조직이나 혁명과 등의 활약 이외에 또 하나가 진정한 의미의 대륙 낭인인 일본인 마적, 더 나아가 마적 그 자체의 존재도 아마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 조금 뒤가 되지만 다이쇼(大正) 11년 경에 소위 <마적의 노래(馬賊の歌)>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유행했던 것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나도 가니까 너도 가라 / 좁은 일본에서는 살기 질렸다 / 파도의 저편에는 지나(支那)가 있다 / 지나에는 4억의 백성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원래 대륙 낭인 사이에서 불렸지만 어느 새인가 내지로 흘러 들어 빠르게 유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래 가사의 내용은 호언장담이라는 비난은 면하지 못했으나 반드시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닌 바도 있다. 물론 모델까지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 가사에 가까운 형태로, 즉 진짜 대륙 마적에, 그것도 그 두목이 되었던 일본인이 실제로 서너 명이나 존재했다. 바다 저편에서의 그들의 활약상은 대륙 낭인 등을 통해 일본에도 전해져 일부 청소년들의 ‘대륙꿈’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 마적의 선구는 가장 빠른 것은 러일전쟁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일본 육군은 러시아군의 후방 교란을 위해 일부 대륙 낭인이나 재지 지방 마적을 끌어모아 이들을 중심으로 만주의군(滿洲義軍)과 특별행동반을 편성하여 그 임무를 맡겼다. 전자 만주의군은 예비 육군 중좌(中佐), 화대인(花大人)이라는 별명을 가진 하나다 나카노스케(花田仲之助)를 총지휘관으로 하여, 주로 '만주' 현지에서 철도 파괴나 정규군의 지원 사격 등을 했다. 한편 후자 특별행동반은 멀리 내몽고에 들어가 러시아군의 배후에서 특히 그 병참선이나 동청철도 등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특별임무로 활약하여 이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자가, 예컨대, 동청철도의 철교를 폭파하려다 러시아군에 체포되어 메이지 37년 4월 하얼빈에서 총살형에 처해진 소위 여섯 열사 중의 두 사람, 대륙 낭인 요코카와 쇼조(横川省三)와 오키 테이스케(沖禎介)이다. 또 요양회전 전후 단신으로 지방의 마적단을 이끌고 곳곳의 쿠로파트킨(Kuropatkin, Aleksei Nikolaevich, 1848 - 1925)의 부대를 위협했던 헨미 다케히코(辺見勇彦)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메이지 후반 대륙 낭인을 중심으로 한 이들 일본인 마적의 활약은 바로 십수 년 후 <마적의 노래>의 유행에 알맞은 토양과 소재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존재는 러일전쟁 승리에 고무되면서도 늘 국내의 폐쇄적인 상황에 불만을 품고 언젠가는 일본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던 일부 청년들에게는 틀림없이 하나의 본보기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이쇼 시대에 들어서고 나서도 이런 마적에 흔들려 대륙, 특히 '만주'로 건너가는 젊은이가 끊이지 않아, 이것이 마치 하나의 계보를 이루는 것같이 태평양전쟁 종결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세한 서술은 생략하겠지만, 가령 가와시마 나니와(川島浪速) 등 제2차 만몽독립운동 때 그 결사단장을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운동 실패 후에도 거듭 중국에 건너가 한 때 장쥘린(張作霖)의 군사고문도 맡고 '만주국' 성립 후에는 만주국군 안둥(安東)지구부대 소속 중장까지 올랐던 유명한 어용 마적 장중위안(張宗援)이라는 별명의 다테 준노스케(伊達順之助)가 있다. 또한 단신으로 만몽(滿蒙)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마적에게 잡혔던 것을 계기로 그대로

마적의 동료가 되어 제2차 봉직전쟁(奉直戰爭) 때 두목으로서 장중창(張宗昌) 휘하에서 활약하고 후에 동북항일의용군의 총두목까지 추대되었던 상쉬둥(尙旭東)이라는 별명을 가진 고희나타 하쿠로(小日向白朗) 등은 그러한 존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이들 마적의 대부분은 그대로 일본군의 앞잡이이고 그 중에서는 중국인에게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항상 전설화된 형태로 일부 청소년의 로맨틱한 ‘꿈’을 계속 북돋았던 것도 사실임에 틀림없고 ‘석양과 권총’라는 ‘만주’ 이미지 속에서 한쪽의 권총 즉 마적을 빼고서는 도저히 다각적으로 ‘만주’ 환상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그야말로 그 때문이다.

IV. ‘환상’ 장치로서의 문학

메이지 38년 9월 러일 양국이 미국의 알선으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고 1년 6개월에 걸친 ‘만주’에서의 권익 다툼을 종결시켰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청일전쟁 후의 삼국간섭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남‘만주’의 권익 일부를 그야말로 10년 간의 ‘와신상담’ 끝에 커다란 희생을 치르면서도 다시 한 번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메이지 39년 11월 소위 ‘국책회사’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자마자 재빨리 그 연선지역에 대한 의식적인 지배권 확장 정책 하에서 많은 일본인이 일자리를 구하러 ‘만주’로 건너갔다. 그 중에서는 신천지에서 ‘손쉽게’ 이익을 보려는 ‘한탕주의’(原田勝正, 『滿鐵』, 岩波新書, 1981)까지 등장했다. 즉 이 시기 ‘만주에 가면 어떻게 든 된다’는 환상이 전쟁 직후의 감상적인 ‘만주’ 이미지와 교착하면서 다름 아닌 신설 국책회사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갔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 즉 ‘만주’가 일본 본토에서 물질적 혹은 정신적으로 내몰려 있었던 사람들과 어울리는 도피처로서, 또한 ‘만주 낭인’이 내지인

에게는 없는 모험과 비애가 서로 섞인 낭만주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시점에서 착실하게 관념화, 더욱이 담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담론화의 문학에서의 결실은 의외로 문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일련의 ‘만주’ 낭인상이 효시가 되었다.

소세키의 ‘만주’상에 대한 고찰은 지금까지 <만주와 한국 여기저기>(메이지 40년 10~12월)라는 현지 여행 직후에 집필한 기행문이 자주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친한 친구인 만철 총재 나카무라 요시코토(中村是公)에 대한 배려 때문인지 거기에는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그것보다도 ‘만주와 한반도’ 여행 후에 발표된 일련의 소설 중에 다양한 ‘만주’ 관련 인물이 등장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인물 조형 쪽에 그의 ‘만주’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확실히 드러났다. 그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외지지향형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인물상이지만 그들은 혹은 연애 경쟁의 실패자 혹은 근대 시스템에서의 일탈자로서 그려져 그 존재는 같은 ‘유민(遊民)’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종래의 소위 ‘고등유민(高等遊民)’과 다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런 ‘고등유민’을 포함한 주인공들의 세계를 상대화하는 기능마저 갖추고 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소설 <門>(메이지 43년 3월) 속에서 야스이(安井)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원래 대학시절 동거 중인 연인을 친한 친구인 주인공 소스케(宗助)에게 빼앗겨 실의 속에서 ‘만주’로 건너갔던 존재로 설정되었다. 그가 같은 ‘만주’ 낭인의 ‘모험자’이자 현재 몽고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던 소스케의 셋집 주인 사카이(坂井)의 동생과 함께 오랜만에 도쿄에 나타나 그렇지 않아도 옛날의 ‘도의상의 죄’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소스케를 한층 더 괴롭히게 된다. 작품에서 돌아온 야스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설 후반부는 틀림없이 그와의 재회를 두려워하는 소스케의 고민과 그곳으로부터의 자기구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야스이의 이름은 ‘여러 사람이 서로 만나다’, ‘위험한 곳’으로서의 ‘만주’와 함께 명백히 일종의 기호성을 가지고 주인공 소스케와 그를 둘러

싼 평범한 ‘내지’의 일상 공간을 계속 흔드는 작품의 또 하나의 극(단)을 이룬다고 생각된다.

또한 <문> 다음으로 발표된 장편 <피안 지나기까지(彼岸過迄)>(메이지 45년 1월)에서는 모리모토(森本)라는 신기한 남자가 그려져 있는데, 과거에 ‘여러 모험담의 주인공이었던’ 그는 ‘비범한 경험이 풍부한 평범인’으로서 이 소설의 형식상의 주인공인 ‘평범을 꺼리는 낭만 취향의 청년’ 다가와 게이타로(田川敬太郎)의 ‘커다란 흥미’를 돋우며 ‘탐험’ 취미에 적지 않은 자극을 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신바시(新橋) 정거장의 직업을 던져버리고 다롄(大連)으로 건너가 버린다. 그 후 다가와 게이타로는 그가 남긴 뱀 조각의 서양식 지팡이를 ‘지표’로 ‘사회의 잠수부’와 같은 ‘탐정’ 행동을 개시하지만 그가 밝혀낸 것은 친구 스나가 이치조(須永市藏)와 그 사촌 다구치 치요코(田口千代子)와의 복잡한 연애 감정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남녀의 ‘작은 우주’였다. 작품의 중핵이기도 한 이 ‘작은 우주’의 주변에는 물론 두 사람의 숙부이기도 한 자칭 ‘고등유민’인 마츠모토 쓰네조(松本恒三)와 같은 쌍방의 상담을 받으면서 그 ‘작은 우주’를 분석, 비평하는 인물도 배치된다. 그러나 마츠모토를 포함하여 등장 인물들의 자폐적인 관계구조를 무너뜨리고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그 전체를 상대화하는 ‘일종의 표시(符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만철 ‘다롄전기공원 오락 관계자’인 모리모토의 존재이다.

이처럼 ‘만주와 한반도’ 여행 후의 소세키 문학에는 말하자면 종래의 ‘고등유민’이 아닌 그야말로 일종의 ‘하등유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만주낭인’의 인물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했다. 그 조형에는 물론 여행 중에 만났던 한 때의 자신의 학생이자 지금은 만철사원이 된 마타노 요시로(侯野義郎)나 그외 각각의 사정으로 현지로 넘어갔던 일부의 색다른 일본인의 경력이 투영되었다. 그러나 소세키에 의한 이러한 일종의 ‘만주낭인’ 내지는 ‘만주’ 그 자체의 표상은 단순히 그들의 존재를 문학적으로 결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만주’에 대한 하나의 관념으로 성립시켰던 것에도 크게 공헌했다. 그 관념이란 즉 ‘만주’를 ‘뒤숭숭함’과 ‘문명’(다롄전기공원

등이 동거하는 장소로 파악하여 내지의 ‘평범’한 생활을 위협하는 것에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어디선가 모험심을 북돋우는 ‘신천지’로 동경해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 메이지 후반에 시작해서 담론화된 ‘만주’관은 그후로도 여러 소설이나 시 등의 문학작품에 의해 반복되고 그 재생산 작업은 이후 소위 ‘만주국’의 성립을 맞이하는 것으로, 하나의 큰 ‘환상’의 성립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V. 투어리즘이 만들어낸 ‘만주’ 꿈

일본 근대 투어리즘은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 붐이 계속된 세계일주 여행의 여파를 받아 초창기부터 잠시 동안은 주로 그러한 형태로 일본을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처음부터 해외 특히 ‘만한(滿韓)’과의 연관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메이지 45년 3월에 철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우선(日本郵船), 동양기선(東洋汽船), 만철 등의 공동출자에 의해 JTB가 설립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다롄, 조선 그리고 타이페이 지부가 계속해서 설치되었던 것은 그런 사정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창립기의 이러한 방침은 그후 다이쇼 중반에 들어와 일본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더욱이 다이쇼 13년에 일본의 여행 문화 향상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문화운동체인 일본여행문화협회(후에 일본여행협회로 개칭)가 설립되고 나서도 대개 그대로 계승되었다.

예컨대 일본여행문화협회의 설립과 함께 창간되었던 기관지라고도 할 수 있는 여행 전문잡지 『여행(旅)』의 창간호(다이쇼 13년 4월)에서 본 협회 설립의 취지를 설명할 때 ‘내지’와 더불어 ‘조선, 만몽(滿蒙), 지나 등에서의 인정(人情), 풍속의 소개’도 그 활동 목적의 하나로서 지정되었다. 또한 같은 창간호에 게재된 만철의 광고에는 ‘여행 시즌 온다 /조선으로! /만주로! /지나

로!’라는 대단히 직설적인 선전 문구가 크게 인쇄되었다. 이것은 거의 한결 같이 ‘만한’이 일본 근대 투어리즘의 성립 과정에서 시종일관 ‘내지’에 지지 않는 형태로 받아들여졌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만한’에서의 투어리즘의 최대 사업은 의외로 중고생의 수학여행이었다.

일본 중고생의 ‘만한(滿韓)’으로의 수학여행은 메이지 29년의 효고현립 도요오카(豊岡) 중학교의 조선 여행을 효시로 했는데 본격화된 것은 오히려 그 10년 후인 메이지 39년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해에 먼저 문부성과 육군성의 공동 주최로 전국에서 선발된 일부 중학생이 5개의 반으로 나뉘어 러일 전쟁의 전적(戰跡)을 순회하는 ‘중학교합동만주여행’이 실시되었다. 이후 이것에 준하는 형태로 소위 ‘전장(戰場)여행’이 급속히 전국에 퍼졌다고 한다(久保尚之, 『滿洲の誕生』, 丸善ライブラリー, 平成8). 이러한 사태가 생겨난 배경에는 물론 전장의 분위기가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는 전적을 애국심 향상의 적절 한 재료로써 의미 있는 수학여행의 견학지로 해야만 한다는 지식인의 의견이나 문부성, 육군성 등의 유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개전 이래 엄청난 전지(戰地)보도에 의해 배양된 ‘만주’에 대한 국민층의 특별한 감정입도 무시할 수 없다. 말하자면 ‘커다란 감동과 흥분을 주었던 ‘휘순(旅順)’에 가고 싶다, 203고지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전 국민적인 전승 기분과 충동이 그들을 적극 ‘만주’로 발을 옮기게 하고 또 그런 수학여행으로의 ‘꿈’을 부풀게 했음이 틀림없다.

‘만한’으로의 수학여행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도 있어서 처음에는 주로 큐슈나 야마구치현의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 현립 슈유칸 중학교(修猷館中學校)가 메이지 39년에 ‘만한여행’을 실시했고 그 다음해에는 야마구치 고등상업학교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이쇼 시대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붐이 전국적인 확산을 보이기 시작했다. 종래의 중학교나 상업학교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범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도 끌어들었다. 한 때 만철의 조사기관에서 여러 요직을 역임했던 이토 다케오(伊藤武雄)의 회상(『滿鐵に生きて』, 勤草書房, 1964)에 의하면 그가 처음 중국을 접

했던 것은 일고(一高) 재학 시절이었다. 다이쇼 6년의 여름방학에 잇코 여행부가 조직한 '만선지(滿鮮支)여행단'의 일행이었던 그는 산둥성을 비롯하여 화베이, '만주', 더욱이 조선을 45일 간이나 여행했다. 물론 다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때의 여행은 그후 그의 인생을 '만주'와 확실히 결부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이토 다케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의 '만주'에 대한 특별한 정념(情念)의 생성을 생각할 때 중고생을 비롯한 이러한 패틴화된 '수학여행'의 체험 자체가 이미 일종의 '만주' 담론의 창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것에 박차를 가해서 그 담론 창조에 공헌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마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마 '여행 중에 견문한 이야기'를 담은 귀국 후의 보고서일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는 물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도쿄부립 제1상업학교 교우회에서 발행한 도우코(当校)(현재의 히토즈바시 대학)의 '쇼와 6년도 제7회 선만지(鮮滿支)시찰여행'의 귀국보고서 『대륙을 걸어(大陸を歩みて)』(富文館, 昭和6)를 소개하고 싶다.

'도쿄시 아리마십상소학교(東京市有馬尋常小學校)' 장인(藏印)이 찍혀 있는 이 보고서는 전부 3편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매일의 견학 내용인 '기행', 참가자가 적었던 소논문인 '연구', 또 각지에서 들었던 저명인의 강연 기록인 '여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안 내자 다카하시(高橋) 씨의 설명. "평텐회전은 실로 오늘날 만주 문화의 기초로 일본 세력을 심게 하고 그 쾌승은 거국일치(學國一致)의 열성(熱誠)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당시의 의기가 있는가. 3월 10일의 제전 당일에 반드시 폭풍우설 등 일기가 좋지 않았던 것은 저 영령이 현상에 분개하는 것이 아닌가. 마땅히 발분흥기(發奮興起)해서 영령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다카하시 씨의 열렬한 한마디 한마디에 점점 머리가 숙여지는 것을 느꼈다. 서서히 머리를 들어 우러르면 5월의 하늘에 탑이 높이 치솟았고 뺨속까지 일본제국민의 각오를 느꼈다.'(『紀行編』『第十日』, 山田正二). 또 '내지인(일본인-필자 주)의 생활은 식민지 기분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빛에 시달리면서 또한 오히려 허영에 사로잡힌 생활을 하고 있다. 길에서 노는 아이들의 복장이 고급스럽고 직원이 인력거로 통근한다는 식으로 생활비가 늘어가는 일이 일본인의 발전에 지장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 까라고 꼼꼼히 생각했다. (중략) 보고(寶庫) 만몽(滿蒙)의 땅은 넓다. 하지만 점차 좁혀져가는 나의 권익과 동포의 지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곳에 책임감이 용연(湧然)하게 끓어오르는 것을 금할 수 없다’(‘研究編’『滿洲雜感』, 川端嘉一郎)라고 하였다.

이것은 실로 ‘소박’한 관찰과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박’한 기록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왔던 서정과 감상, 더욱이 권익의 대상으로서의 ‘만주’가 ‘홀륭하게’ 응축되어 있고 그 언설은 18세 전후의 소년의 것이기 때문에 한층 더 그들이 둘러싸인 시대의 ‘진실’과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 한 권이 도내에 있는 한 심상소학교의 방 하나에 소장돼 있었던 것을 아울러 생각해보면 소년들의 ‘소박’한 ‘만주’ 체험과 그 기록으로서의 담론이 얼마나 시대의 흐름 속에 유입되었고 또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VI. 나오며

1931년 9월 18일 선양(瀋陽) 교외의 류타오후(柳條湖)에서 관동군에 의한 자극적인 만철선로 폭파사건, 세상에서 말하는 ‘만주사변’이 발발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32년 3월에 이것 또한 관동군의 연출로, ‘신국가’ 선언이 이루어져 소위 ‘만주국’이 탄생한다. ‘정천립지(頂天立地)’의 ‘신천지’(『만주국국가(國歌)』)로 예찬되었던 ‘신국가’의 성립에 있어 특히 그 ‘이념’ 만들기에는 예컨대 ‘만주청년연맹(滿洲靑年連盟)’(쇼와 3년 발족)이나 ‘대웅봉회(大雄峯會)’(쇼와 5년 발족)와 같은 정치결사, 관동군 참모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나 다렌 주재 평론가 다치바나 시라키(橘儀)와 같은 ‘사상가’ 등 실로 여러 단체와 개인이

가담했다. 지면 관계로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 이상 다룰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그들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이념’은 물론 이후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시도했던 여러 가지 ‘실천’도 결국은 전부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왔던 막연한 ‘환상’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만주국’이라는 ‘낙토(樂土)’는 처음부터 이미 하나의 ‘꿈’으로서 붕괴할 운명을 품고 있고 그것이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는 것 역시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 2019년 04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4월 13일